

CCTPA English

관용어 풀이

사생활이나 직장 등에서 상호간의 의사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고 예절있는 언어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특히 요즈음처럼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말과 관련된 관용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To hear through(by) the grapevine :

풍문으로 듣다.

19세기 중엽부터 쓰이기 시작한 매우 재미있는 관용어로 ‘한사람으로 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소문’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포도넝쿨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다.

흥미있는 뉴스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포도넝쿨로 비유한 지혜가 아주 재미있다. 하지만 넝쿨이 자라기에는 시간도 걸리지만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일설에는 포도넝쿨을 전화 수화기의 전선이 둘둘 말려있는 데에 빗대어 생겨난 표현이라고 한다. 전화로 소문이 퍼지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다.

-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that Anne was going to get married.
(Anne이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 Did you hear that rumor by the grapevine?
(그 소문을 남들한테서 들었니?)

To blow one's own horn(trumpet) :

자화자찬하다.

이 관용어도 사용하게 된 지가 꽤 오래며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한다든가 보태서 얘기한다’는 뜻이다.

남이 한 일을 칭찬한다면 들어도 흐뭇하고 저항을 느끼지 않지만 자신의 공치사가 많고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듣는 이가 거북해질 것은 뻔한 노릇이다.

소위 ‘P.R.’라 하여 섭외활동을 일컫는 ‘public relations’도 광고 위주로 되면 듣는 입장에서 다분히 짜증스러워 지는데, 자화자찬한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

여기 ‘trumpet’는 일종의 ‘horn’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관용어는 그 어느 것을 사용해도 같은 뜻이 된다. 하지만 ‘horn’은 비교적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 I can't stand people who are always blowing their horns.
(언제나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사람에겐 견딜 수가 없다.)
- Tom is blowing his own trumpet again, isn't he?
(Tom은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있군요.)
- Everyone knows you won 1st prize. Stop blowing your own horn!
(당신이 1등한 것은 다들 알고 있네. 자기 자랑은 이제 그만 하라구!)

A tall tale :

허풍, 호언장담

‘Tale’은 말하자면 ‘fairy tale’이라는 말에서처럼 ‘이야기’라는 뜻인데, 19세기에 이르러 ‘과장된’ 또는 ‘진실 이상의’라는 뜻으로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의 ‘tall tale’은 조금은 사실인 데가 있기는 하지만 과장되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받아들여지

고 있지 않는 얘기로 풀이되고 있다. 전설이나 민화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설화 가운데 포올 베년이라는 나뭇꾼과 그가 기르고 있는 황소 베이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는 여러가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마치 그가 해낸 양 쓰여져 있다. 이런 류의 ‘tall tale’은 어느 나라에나 많이 있는 것 같다.

- Stop telling me those tall tales!

(그따위 허풍 작작이 해 두게!)

- Do you really believe that tall tale Jack was telling you?

(Jack이 당신한테 한 그 허풍을 정말로 믿고 있는 거야?)

- In spite of all that tall tale about his connections on Wall Street, Eric was unable to make any money in the stock market.

(Wall가에 좋은 배경이 있다는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Eric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

A snow job :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기만적인 진술

2차대전 무렵부터 쓰이기 시작한 이 표현은 표제의 해석대로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려쿵 저러쿵 말하면서 속이려고 한다’는 뜻이다.

‘Snow job’을 맡는 입장의 사람은 쌓이는 눈 속에 파묻히고마는 것처럼 상대가 하는 말 속에 매몰되어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 표현은 곤란한 질문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거나 자기의 과오를 변명하려고 하는 경우에서 흔히 쓰이게 된다.

- That excuse of Tom's was a real snow job.

(Tom의 그 변명은 그야말로 엉터리이다.)

- When the reporter asked an embarrassing question, the politician just gave him a snow job.

(기자가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그 정치

가는 그저 답변을 얼버무려 넘겼다.)

- That dealer did a snow job on me by selling me a car that was a worthless piece of junk.

(그 장사꾼은 나를 속이고 쓰지 못할 고물차를 팔아 넘겼다.)

- He gave her a snow-job on his army career.

(그는 자기 군대경력을 듣기 좋게 꾸며서 그 여자에게 말해줬다.)

정보통신 용어해설

• COMSAT(Communication Satellite Corporation) :

1963년에 설립된 미국의 민간통신회사. 통신 위성사업을 상업베이스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국책회사이다. 세계 통신위성망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위성 알리버드 1호를 1965년 4월에 쏘아 올렸다. 자회사 STC는 1980년 대 후반 일반가정에 대해 위성방송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CPS(Character per second) :

1초당 프린터를 통해 프린터되는 문자수를 말한다. 보통 개인용 컴퓨터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프린터의 인쇄속도는 영문자의 경우 200~500CPS, 한글 등의 경우에는 30~100CPS정도이다.

• Pattern Recognition :

문자, 도형, 음성 등 컴퓨터용으로 부호화되어 있지 않은 사물을 판별, 인식하는 것. 이는 컴퓨터의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 최근에는 이 분야의 기술혁신 역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패턴정보처리기술의 개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 Projection TV :

TV영상을 특수한 투사관을 이용하여 대형 스크린에 확대 투영하는 장치·비디오 프로젝터라고도 한다.